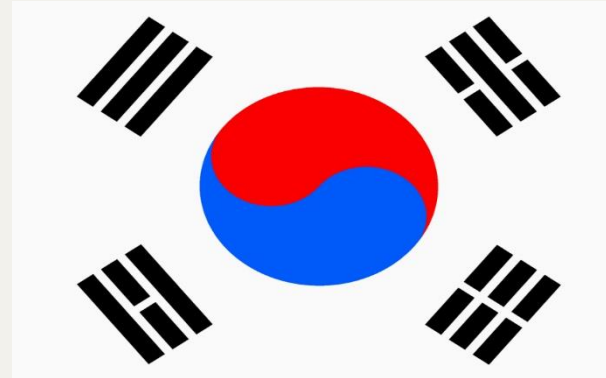


미얀마팀의 10월 보고서

미 지 존



with



KB국민은행

RaonAtti

오현진

신유정

안소연

홍세현

구건모

목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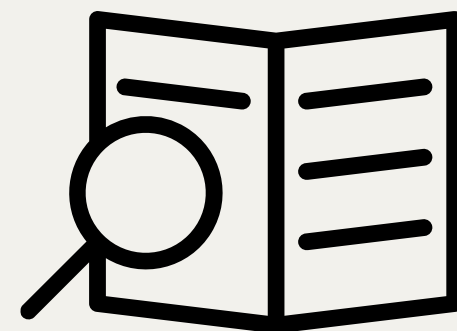
1 주차 01일 ~ 06일

2 주차 07일 ~ 13일

3 주차 14일 ~ 20일

4 주차 21일 ~ 27일

5 주차 28일 ~ 31일



1,2 주차

Clap your hands, Touch your toes

04

1 주 차 보 육 활 동

야외 활동을 할 수 없는 아이들을 위해서 실내에서도 할 수 있는 체조를 알려주고 싶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율동 체조 후보들이 있었지만 너무 스토리가 길거나 4살 아이들이 따라하기 어려운 정교한 동작인 동요들은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우리가 선택한 이 동요는 전에 했던 것보다 간단한 동작들이 빠르게 변경되어 더 난이도가 있으면서도 집중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팀원들의 높은 지지를 받았다.

1주차 - 주요 활동 내용

05



영어 율동 따라하기



열심히 춤추는 아이들

1주차 - What is your favorite color?

05

색깔을 한국어, 영어, 미얀마어로 적어보기



이제 말할 수 있어요

반복 학습으로 이제 색깔을 한국어로 말할 수 있게 된 아이들
이번에는 조금 더 어려운 '쓰기'에 도전해보았다.
하지만 역시... 너무 버거워했다.

1주차 - 주요 활동 내용

07



땀다 땀다 비행기

08

2주차보육활동



아보 아보 레임야~



비행기가 되어보자

아띠 클럽 / 편치 stay with me

09

1
주
차
아
띠
클
럽

이번 달은 아띠 프로젝트와 중간평가 준비로 인해 아띠클럽 모임을 많이 열지 못해서 아쉽다.
아띠 클럽에서는 한국에서도 인기가 많았던 드라마 ‘도깨비’ ost , stay with me 를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운명’, ‘눈빛’ 등 추상적인 개념들이 많이 등장하여 설명하기 어려웠다.

1주차 stay with me _ 아띠클럽

10



도깨비



정말 네가 나의 운명인 걸까

한국의 인기 드라마 도깨비 ost 가사를 분석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미얀마의 인기 가수 '라엣'의 노래도 미얀마어로 알려주셨다.
서로 노래를 교류하며 더 수준 높은 회화 단어를 공유할 수 있었다.
하지만 동사의 변형을 여전히 어려워하는 것 같았다.

3 주차

1.

휴일

- 미얀마의 추수감사절

- 아피클럽 멤버들과
같이 진행한 캠페인.
- 보육원 아이들에게
자신의 몸의 소중함
알려줌

2.

**End Poverty
Campaign
(EPC)**

3.

놀이터 준비

- 놀이터를 만드는데
쓰일 타이어를 씻고
운반함



- 미얀마의 추수감사절임
- 미국 대사관측 공문으로 인해 밖에 자유롭게 돌아다니지 못함
- 4일동안의 외출은 장보러 나간 날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음
- 엔드포벨티 캠페인에 대한 준비를 함



- 캠페인을 통해 사람들의 불평등한 기존의 성 인식을 END POVERTY의 목표인 평등한 성 인식으로 전환한다.
- 보육을 통해 성적 자기 결정권을 습득시키고, 내 몸은 소중하다는 것을 인지시킨다.
- 보육을 통해 나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몸도 소중함을 알려주면서 동의 구하는 법을 배운다.



휴일 기간동안 엔드포벌티에 관한 보육자료를 만들고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아이들을 위한 자기 몸을 지키는 간단한 연극을 선보였다.
또 본인의 몸을 그려봄으로써 우리 몸의 소중함을 일깨워주었다.



매주 토요일마다 운영하는 아피클럽에서 엔드포벨티 캠페인에 대한 토론시간을 가짐.

주제를 성교육으로 정함.
미얀마의 성교육 수준 관련 설문조사와 가장 필요한 변화가 무엇인지 양곤 시민들에게 물어봄



- 어린이를 위한 놀이터를 만들기로 함.
- 타이어를 이용한 놀이기구를 만들기 위해 타이어를 깨끗이 닦는 작업을 함

4 주차

4주차 (350PPM)

350PPM 보육준비

19



350PPM을 준비하는 팀원들의 모습이다.
우리가 배운 내용을 토대로
아이들이 더 쉽고 재밌게 이해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다.

350PPM 보육준비



물 받아 놓고 세수하기

휴지 대신 손수건 사용하기

사용하지 않는 콘센트 뽑기

텀블러 사용하기

일회용 봉지가 아닌
장바구니 사용하기

포스터 제작

아이들이 직접 꾸며 오래 사용할
수 있는 종이팩을
직접 제작

4주차 (350PPM)

350PPM 보육준비

21



아이들에게 제작한 포스터를 기반으로 쉽게 350PPM 실천을 위한 방법을 설명해 주고 실제로 물건들을 보여주며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였다.

4주차 (350PPM)

22

350PPM 보육준비



아이들이 직접 체험해보는 시간도 갖고 종이가방을 직접 꾸며 아이들 자신이 만든 가방을 사용하여 흥미로운 방법으로 교육하였다.

중간 격려 방문 준비

23

청소 (식당, 도서관)

식당



식당 청소는 바닥 미싱을 1시간 정도 하였다.
검정색이었던 바닥색이 흰색으로 변하는기적을 보았다. 식당이 한결 청결해진 것 같아
팀원 모두 만족해했다.

도서관



도서관에서는 주변 용품, 책정리와 바닥청소를 하였고 도서관에 있는 화장실도 청소를 하였다.
도서관 청소가 끝난 후에 도서관이
더 넓어 보이는 착시현상을 느꼈다.

미팅룸 세팅



우리의 중간발표가 이루어 질 장소인 미팅룸을 청소하고 책상과 의자를 세팅하였다.

건모와 현진은 책상과 의자가 상당히 무겁고 많아서 다음날 근육통이 왔다는 속설이 있다.

지금까지 생활하며 한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장소여서 미얀마 팀원들은 '이런 좋은 비밀의 방이 있었네'라며 놀라워하는 반응을 보였다.

5 주차

간사님들 만나러 공항으로 출발~



한국에서 간사님들이
오시는 날이었다.

저녁까지 중간보고회
준비를 마치고
밤 9시에 간사님들을
만나러 양곤 국제 공항
으로 출발했다.

오랜만에 간사님들을
만날 생각을 하니 팀원
들 모두 기분이 좋아 보
였다.



오전 11시부터 중간 보고회가 시작한다는 말을 듣고 우리는 아침부터 분주했다. 임이경 간사님께 중간보고회 PPT를 보여드렸다. 간사님은 PPT의 내용 구성은 좋지만 활동을 하면서 우리가 느낀 점과 생각이 많이 없는 것 같아서 아쉽다고 하셨다. 중간보고회 발표 리허설을 하기 위해 발표 하는 곳으로 이동했다. 원래는 영어로 발표를 하면 한국어로 발표를 하는 식으로 진행하려고 했다. 그러나 한국어로 발표할 때 시선이 분산 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영어로만 발표하기로 했다. 발표 당일에 갑자기 수정 된 내용이어서 팀원들이 당황 했을 수도 있었다. 다행히도 다들 자신이 맡은 부분을 침착하게 발표하여 중간 보고회 발표를 잘 마칠 수 있었다.

5주차 - 2019.10.29

28



자신의 소감을 발표하는
소연 단원

Brush your teeth의 보육
활동을 발표하는 중에 양곤
YMCA 총장님께서 이 닦는
순서를 물어보셔서 열심히 설
명하고 있는 건모 단원과 도와
주는 현진, 유정 단원





중간 보고 발표가 끝나고 양곤YMCA 총장님의 말씀이 이어졌다.
우리가 미얀마에서 생활하면서 불편하게 생각했던 것들에 대해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다. 총장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불편하게 생각했었던 것들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었다. 모두에게 뜻 깊은 시간이었다.

5주차 - 2019.10.29

30

간사님들을 위해
맛있는 저녁을 준비하는
건모, 유정 단위



중간 보고 발표를 끝내고 늦은
점심을 먹으러 가는 미지존 팀
과 간사님들



5주차 - 2019.10.30

31



그룹미팅을 통해 매주 나눔
실시 및 팀 내 규칙 재정비





맛있는 샤브샤브~~





산드라 간사님, 알렉스, 한국 간사님들과 우리는 버스를 타고 보육지로 이동했다.
4곳의 보육지 중, 뽕레와 마오플라바를 갔다.
뽕레는 최근부터 가게 된 보육지라서 버스로 이동한 적이 없었다. 처음으로 버스를 타고 뽕레를 가게 되어서 팀원들이 신기해 했었다.

5주차 - 2019.10.31

34



보육지로 가기 전, 단체사진~
(마하반둘라 공원, 시청, 술레 파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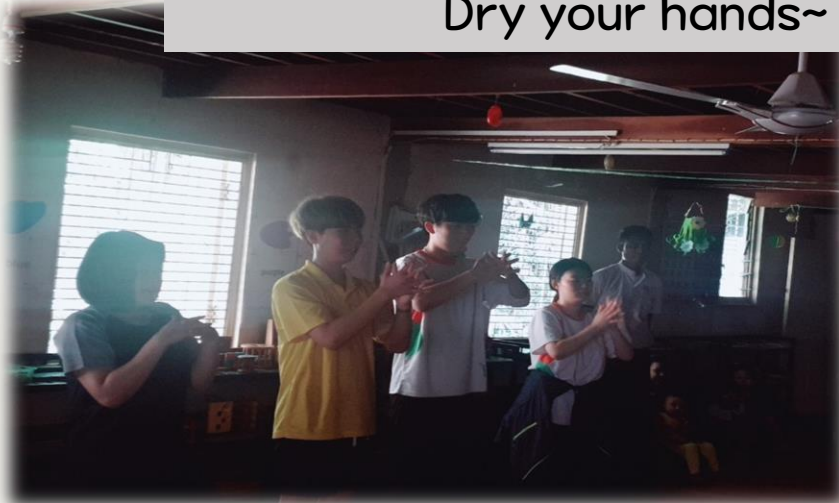


5주차 - 2019.10.31

35



Wash your hands~ Show me your hands~ Rub your hands~
Dry your hands~ Shake your hands~





We must say "NO!"
Don't touch my body.



5주차 - 2019.10.31

37



5주차 - 2019.10.31

38





소 감

신유정

나에게 10월은 자기반성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던 달이었다. 2개월 간 미얀마에서 활동하면서 나의 태도, 행동, 생각 등에 대해 성찰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중간평가 때 간사님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고 그룹미팅을 통해 팀 내 규칙 등을 재정비해서 팀워크를 다질 수 있었다.

내가 라온아피를 하고 싶었던 이유와 정말로 라온아피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다.

안소연

중간평가 전부터 몸이 좋지 않아 주요 활동(보육 등), 중간평가 준비와 팀원과 같이하는 일상(요리, 설거지 등)에 함께하지 못하였다. 몸 상태가 좋지 않은 부분은 다른 팀원한테 피해가 가지 않게 애써 감추려고 했지만, 일하는 동안 내가 해야 할 분량에 대해 하지 못한 것이 가장 미안했다. 내가 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다른 팀원이 일을 더 가중해서 하는 모습을 보고 몸 상태가 빨리 회복했으면 했지만 그러지 못하였다.

오현진

10월 한달 동안 보다 미얀마에 잘 적응한 느낌이 들어 다행이라 생각했고 중간격려방문을 통해 국내훈련 때 배운 것들을 상기시키는 기회가 된 것 같아서 좋았다. 간사님들도 오랜만에 뵈어 전환점이 된 것 같아서 또한 좋았다.

홍세현

감정기복이 좀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나름 노력했던 한 달이었다. 추억이 될 만한 많은 일이 있었다. 울 때도 잘 울었고 기별 때는 잘 웃었다. 이해하는 것이 더 많아졌고 이해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덜 예민해졌다. 그리고 한국에서부터 고질적으로 앓고 있었던 불면증이 나았다는 소식을 전하고 싶다.

구건모

아피클럽 친구들과 엔드포벨티 캠페인을 하면서 깊은 관계를 쌓았고 성취감을 느꼈다. 현지인 친구들과 더 친해져서 좋았다.



**미지존 모두 남은
3개월도 앞으로 이렇게
웃으며 보람차게 지내자!**

감사합니다.